

# 3단계의 저승 세계? 하늘 나라, 연옥 그리고 지옥

최재영 시몬 신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신앙학교, 여름캠프 등으로 이어지는 여름방학 기간의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면서 정신을 쏙! 빼 놓았을 텐데요.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때일수록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행사 준비 때문에 분주하게만 지내다 보면 선생님들 마음속의 예수님 자리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나온 김에 이번 달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나라, 연옥,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생의 막이 내리면 곧바로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을 '사심판'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심판을 통해 각 개인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 불쌍한 라자로의 비유(루카 16, 19-31),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도둑 이야기(루카 23, 26-43)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대목들은 사람에 따라서 영혼의 궁극적 운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나라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걸까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이고, 둘째,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1코린 13, 12)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1요한 3, 2)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며 기쁘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동하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모님 그리고 모든 성인들과 함께하는 생명과 사랑의 친교가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며, 가장 간절한 열망의 실현이고, 가장 행복한 결정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는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늘 나라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친교 속에서 산다면, 그래서 사랑의 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톨릭교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연옥'은 어디인가요?

 하늘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옥도 종종 어떤 장소로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룩함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 먼저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를 단죄받는 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옥에 있는 이들은 살아 있을 때 신앙고백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영혼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죽음 이후 연옥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론 연옥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직천당'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불러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자신의 못난 행동이 떠올라 얼굴은 화끈거리고……. 연옥의 정화는 바로 이런 형태일 거라 짐작됩니다. 죄인인 내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일 말입니다. 아무튼 연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화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시선을 기쁨 속에서 마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미사성체를 드렸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정화되어 하느님을 마주 뵈울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죽은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바칩시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영혼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정화와 단련의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나요?

 지옥 역시 어떤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단죄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거부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는 것은 곧 영원히 하느님과 헤어져 있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는 자기 자신인 것이고, 지옥은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스스로가 만드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셨고, 인간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늘 나라 대신 지옥을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거부하면 그분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조규만 주교(2013년 5월 30일, 명동성당 신앙의 해 기념 청년 미사 강론 중)

최재영 시몬 신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연구팀 담당 사제